

## 디자이너 노라노 고찰

-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패션쇼와 디자인 특성을 중심으로 -

박 신 미

국립안동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노라노(노명자) 디자인과 노라노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노라노의 패션쇼와 디자인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한국 패션디자이너 발전과정의 일면을 고찰하는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처가 명확한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노라노의 패션쇼와 디자인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를 통해 추출된 노라노 디자인의 시대별 특성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둘째, 패션쇼와 디자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노라노의 작품 중 한국 패션디자인 발전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작품은 무엇이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문헌연구, 자료 및 내용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으며 내용분석을 위한 사실검증 및 시대적 상황 고찰을 위해 연구자가 진행한 구술채록연구(2012)와 선행연구면담(2013) 이외에 본고를 위한 실증면담연구를 추가했다. 본 연구의 결과 연구대상자 소장 리플렛과 인쇄물 분석으로 밝혀진 근거가 명확한 노라노의 패션쇼는 총 25건으로 밝혀졌으며, 1950년대부터 1990년대 노라노 디자인의 유형은 1950년대 '스타일 혼재기', 1960년대 '스타일 정립기', 1970년대 '디자인 차별화기', 1980년대 '소재와 프린트패턴 특성화기', 1990년대 '클래식라인 회귀기'로 추출되었다. 노라노는 제1세대 한국패션디자이너 중 한명으로 한국 근현대 패션사에서 헤위트렌드 유입과 고급기성복 패션시스템구축에 일조했다.

주제어: 노라노, 패션쇼와 디자인 특성, 제1세대 한국패션디자이너, 한국 근현대패션사

본 논문은 2013학년도 국립안동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논문접수일: 2014년 4월 3일, 수정논문접수일: 2014년 4월 14일,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3일

교신저자: 박신미, fashion@anu.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패션디자인 연구영역에서 한국 근현대 패션사 연구는 190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 양장사 변천을 고찰한 유수경(1989)<sup>1)</sup>을 필두로 2000년대 이후 연구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 근현대 패션사의 핵심 축인 제1세대 디자이너들의 연구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제1세대 한국 패션디자이너 연구의 시초로 국립예술자료원에서 <한국근현대사기술채록사업>의 대상자로 ‘최경자’를 논의했지만 기술채록의 특성상 생존자만이 연구대상이 됨으로 2008년 작고한 최경자는 선정되지 않았고, 2012년 최고령 생존 디자이너 ‘노라노(노명자)’가 자서전 「노라노, 열정을 디자인하다(2007)」<sup>2)</sup> 발간과 패션스타일리스트 서은영이 기획한 『라 비 앙 로즈(La Via en Rose, 2012)』<sup>3)</sup>전으로 언론의 주목받으며 기술채록 대상자가 되어 한국 근현대 패션사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하지만 기술채록 연구의 결과물<sup>4)</sup>은 자료수합 과정과 연구 방법론적 측면에서 기술자의 기억에 의존해 연구대상자의 말을 단순 서술해야함으로 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이고 채록연구원의 객관적 관점이나 검증된 연구 자료를 채록문에 삽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자료로서의 가치와 기술자의 자서전적 성향의 경계가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한국 근현대 패션사가 왜곡 없이 연구되기 위해서는 전시를 위한 홍보나 개인 의견을 정리한 주관적 자료가 아닌 사료적 가치가 있는 객관적 자료의 추출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선행연구<sup>5)</sup>를 통해 패션브랜드 노라노의 활동시기별 특성과 한국 패션사적 의의를 밝혀냈고 본고에서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노라노 소장 디자인과 관련 인쇄물을 분석하여 패션사적 의미가 있는 디자이너관련 1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한다. 또한 20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노라노의 패션쇼 분석은 연구대상자 작품의 디자인 특성뿐만 아니라 한국 패션디자인의 트렌드와 발전과정을 읽어낼 수 있는 1차 자료로 이것은 한국근현대 패션사와 한국 근현대사 관련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2. 연구목적 및 방법론

본 연구의 목적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노라노 소장 디자인과 노라노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노라노의 패션쇼와 디자인의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한국 패션디자인사 발전과정의 일면을 고찰하는데 있다.

연구목적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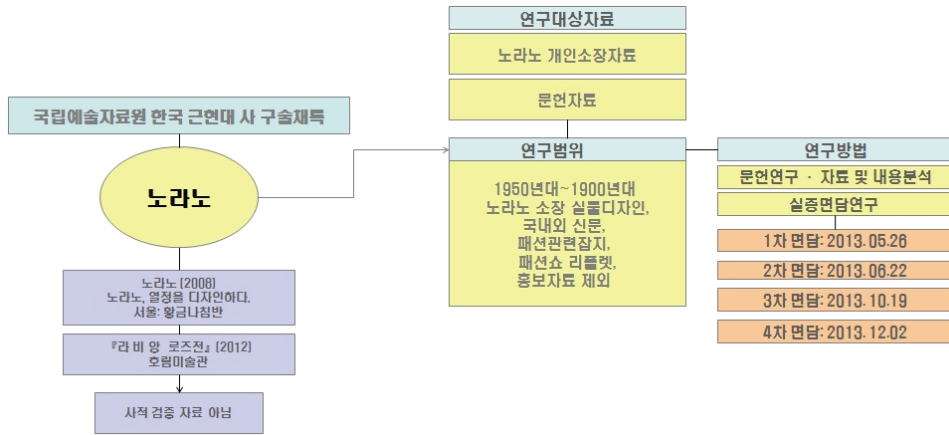
첫째, 출처가 명확한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노라노 패션쇼와 디자인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를 통해 추출된 노라노 디자인의 시대별 특성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둘째, 패션쇼와 디자인 분석을 통해 추출된 노라노 작품 중 한국 패션디자인 발전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작품은 무엇이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디자이너 노라노 소장 작품 400여벌 중 노라노와 선정한 대표작 60벌 그리고 연구대상자 개인소장 인쇄자료와 연구자가 수집한 관련자료 124건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노라노의 패션쇼와 디자인 특성을 고찰한다.

본고는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대상을 연구대상자 소장 ‘실물디자인’과 ‘패션쇼 리플렛’, ‘촬영시점이 기록된 사진’, ‘신문’, ‘패션전문잡지’로 국한하며, 2007년 이후 자서전과 2012년 『라 비 앙 로즈』전<sup>6)</sup> 홍보물로 게재된 신문 및 잡지 매체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는 실물디자인 분석은 노라노의 설명을 연구 자료

<표 1> 연구 구성



에 포함시키고 이중 제작년도 소실 등으로 사실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것은 인쇄매체자료와 비교 검증 후 확인된 내용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본 연구의 이론적배경인 노라노 패션의 성장과정, 활동시기별 특성은 이미 선행연구<sup>8)</sup>에서 심층 분석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패션쇼와 디자인 특성 분석에 집중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자료 및 내용분석을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고 내용분석을 위한 사실검증 및 시대적 상황고찰을 위해 연구자가 진행한 구술채택연구(2012)<sup>9)</sup>와 선행연구면담(2013)<sup>10)</sup> 이외에 4차례 실증면담연구(2013. 05.28: 06.22: 10.19: 12.02)<sup>11)</sup>를 추가한다<표 1>.

## II.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노라노 패션쇼의 사적 고찰<sup>12)</sup>

본 장에서는 노라노 소장 리플렛, 패션쇼 사진, 신문자료를 분석하여 근거가 명확한 노라노 패션쇼 자료를 추출한다. 노라노의 패션쇼는 이미 알려진 한국 최초의 패션디자이너 쇼인 1956년 반도호텔 패션쇼가 있다. 그러나 이외의 패션쇼 관련

자료는 연구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해 수집된 것으로 정확한 자료추출에 의한 내용분석이 필요하다. 노라노가 소장하고 있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패션쇼 리플렛은 총10개이며 이외에 패션쇼 사진들이 남아있다. 사진자료는 활동시기와 특성이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분장에서는 연구자 수집 신문자료와 연구대상자 소장 사진자료를 사적 고찰하여 이를 근거로 노라노 패션쇼의 정확한 연대 및 특성을 추출한다<표 2>.

1950년대 노라노의 패션쇼는 국내에서 진행되었으며 파리의 트렌드를 반영한 일상복라인과 한복을 재해석한 드레스라인이 주류였고 이 시기 노라노는 서구식 패션쇼의 형식을 정립한다. 프랑스 연수직후 개최된 최초의 디자이너 패션쇼인 1956 F/W 『제1회 반도호텔패션쇼』<sup>13)</sup>에서 노라노는 1부 데이웨어, 2부 드레스라인으로 쇼를 구성하고 이 컬렉션의 작품은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H라인’과 ‘스핀들라인,’ 발렌시아가의 ‘라글란슬리브’와 ‘베럴라인’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패션쇼의 주력스타일로 자리 잡으며 노라노 디자인의 클래식라인이 된다. 대표작은 『라글란슬리브 코트』, 『H라인원피스』가 있다. 그러나 프랑스식 부티 쇼의 형식을 갖춘 『제

1회 반도호텔패션쇼』 이전에 노라노는 이미 1953년 미국 NBC 방송국의 초청으로 『미니패션쇼』<sup>14)</sup>를 여는데 이것이 비공식 한국 최초의 디자이너 패션쇼이다. 당시 미8군 가수였던 박단마, 박혜옥, 유희희 등이 쇼의 모델이었고 대표디자이너는 박단마가 입었던 『썬드레스』이다. 대한뉴스의 영상자료에는 1957년 『반도호텔 옥상 야외패션쇼』자료가 남아있다. 대표디자이너는 『라글란슬리브 코트원피스』, 『블랙 트렌치코트』가 있다. 1957년 F/W 『조선호텔 패션쇼』는 사진자료로 남아 있고 ‘칼리지패션’,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스핀들라인’과 발렌시아가의 ‘베털라인 코트’와 ‘원피스’가 주류스타일이다. 또한 1958년 S/S 『노라·노 핏쇼』는 동아일보기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좁 더 大衆的으로」<sup>15)</sup>라는 칼럼에서는 노라노가 발렌시아가의 ‘색라인’과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뉴룩’을 변형한 디자인을 출시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반도호텔에서 열린 1958년 F/W 『노라·노 핏쇼』는 1950년대 노라노 클래식라인들이 한복을 모티브로 한 드레스라인과 함께 선보인다. 리플렛에서 노라노는 “씨루엣의 포인트는 금년도 유행라인인 ‘엠플라이어 라인’이 ‘치마·저고리·라인’과 흡사한 것을 응용해서 세계적인 공감을 사게 할려고 노력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며 자신이 동서양의 조화를 담은 드레스라인을 전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림 1>. 노라노는 처음 인연을 맺은 국내 체류 외교관들을 위한 컬렉션을 이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특히 국내거주 미국인들을 위한 쇼는 1980년대까지 이어진다. 외국인대상의 패션쇼에서는 주로 파티복을 선보이는데 1959년 『US Wiver’s Club Fashion Show』 모델이었던 남미리와 최지희가 한복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양단드레스』를 착용한 신문기사 사진이 남아있다.

1960년대 노라노의 패션쇼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데 초기 국내 쇼에서는 1950년대 후반 자신의 스타일을 발전시키고 중반이후부터는 기성복에 맞게

디자인을 단순화하며 해외수출을 위한 바이어 쇼를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 리플렛이 남아있는 1962년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제9회 노라·노 핏쇼』<sup>16)</sup>에서 노라노는 신일양화점과 서울미장원의 협찬을 받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패션쇼를 기획한다. 리플렛에서 노라노는 “트위드와 울저지를 中心으로” 곧 소재 중심의 컬렉션을 준비했음을 밝히고 있다. 1963년 노라노는 『미우만백화점 기성복 패션쇼』를 여는데 이것이 최초의 디자이너 기성복 패션쇼이다. 이를 계기로 노라노는 <노라노 코너>를 백화점에 오픈하여 기성복시장에 진출하는데 당시의 슬로건이 “마음대로 입어보고 마음대로 골라사는 옷”<sup>17)</sup>이다. 1964년에는 『화신백화점 기성복패션쇼』를 개최하는데 국내 중심으로 활동한 이 시기까지가 프랑스 쿠티르들의 영향을 받은 노라노의 클래식라인 구축기이다. 신문자료<sup>18)</sup>를 살펴보면 같은 해 노라노는 하와이 진출을 앞두고 조선호텔에서 『노라노 고별패션쇼』<sup>19)</sup>를 여는데 1부는 겨울옷 기성복 55벌을 2부는 하와이 수출을 위한 샘플 실크드레스를 선보인다. 1965년 노라노는 하와이에 쇼룸을 열고 첫 해외시장에 진출했는데 이에 관한 패션쇼 사진, 패션쇼 프로그램지와 하와이언 타임즈(Hawaiian Times)의 신문기사가 자료로 남아있다. 당시 프로그램을 보면 실크, 실크 혼방, 울, 울 혼방, 면 소재를 기본으로 무대가 구분되어있고 슈트와 코트를 기본으로 『밀리터리 슈트』, 『색동가운』 그리고 『양단 드레스』가 컬렉션의 주력아이템이었다. 1966년 신문자료를 보면 노라노는 1년 7개월 동안 하와이활동을 끝내고 귀국해 첫 번째 『살롱패션쇼』를 열었는데 ‘A라인과 H라인이 대표스타일이었다’고 기록되어있다. 1969년에는 대한방직협회 후원, 부산 YMCA와 서울신문사 주관으로 『면직 기성복 패션쇼』<sup>20)</sup>를 개최하는데 이것이 기존에 알려져 있는 『목화아가씨 패션쇼』이다. 리플렛과 신문자료를 분석해보면 패션쇼에는 면직을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들이 보이고 『홈 드레스』, 『면 원피스』, 『데님 팬츠슈트』가 주목받은 스타일이다. 당시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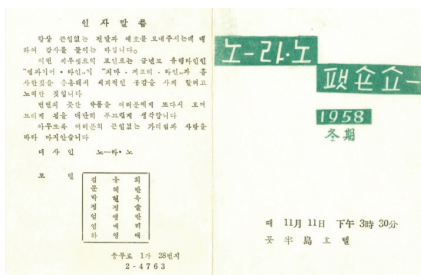
된 목화아가씨가 1969년 이회재, 변자영이<sup>21)</sup> 이들이 그동안 패션쇼 모델로 활동한 영화배우, 가수 그리고 일반인이 아닌 최초의 여성패션 전문 모델이다

1970년대 역시 국내외에서 패션쇼를 개최하는데 이 시기 쇼는 바이어를 위한 바이어 쇼의 성격이 강하다. 1971년 중앙일보에서 확인된 패션쇼는 1969년 『면직 기성복 패션쇼』에 이어 동일한 성격으로 개최된 쇼로 신문에는 이것을 『목화아가씨 ‘패션쇼’』로 소개하고 있고<sup>22)</sup> 서울 YMCA의 주최로 05월 31일 조선호텔, 06월 01일 시민회관에서 2차례에 걸쳐 개최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대표스타일은 『햇팬츠』, 『테일러드 슈트』, 『비치웨어』이며 100여점의 면직, 마직, 혼방, 타월 등의 소재로 만든 디자인이 소개되고 있다. 1972년과 1973년 노라노는 상공부와 코트라의 지원으로 파리 프레타 포르테 박람회에 참여해 『부스 바이쇼』를 연다. 노라노 소장 신문자료<sup>23)</sup>와 중앙일보<sup>24)</sup>자료를 종합해 보면 노라노는 1972년 가을 『포트 베르사유 파리 프레타 포르테 박람회』를 시작으로 1973년 봄과 가을에도 이 박람회에 다시 참석한다. 상공부와 코트라의 후원으로 진행된 1973년 봄 박람회에서 노라노는 삭스 피프스 에비뉴 백화점에서 스타일별로 60벌씩 첫 해외 수주를 받았고 가을 박람회에서 10여 업체에서 350벌 약 미화 2만 불상당을 주문 받는다. 1972년 첫 박람회의 스타일은 구체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1973년 신문기사분석을 통해 최초 참석년도와 행사가 확인된다. 1973년 봄에는 주니어를 위한 『클라운스타일』, 『바둑무늬에 囍자를 새겨 넣은 실크 레이프원피스』, 『기하학패턴』이, 가을 박람회에서는 ‘기하학패턴’과 ‘꽃무늬패턴’이 주력 상품이다. 이 시기에도 실크와 프린트패턴은 노라노 디자인의 경쟁력이었는데 노라노는 가을 박람회를 위해 직접 도안한 프린트패턴을 선경(SK)에 의뢰해 주문 제작한다. 1974년에는 상공부와 대한잡사협회 후원으로 뉴욕에서 『견직물 바이어 패션쇼』<sup>25)</sup>를 열고 이 컬렉션 이후 노라노의 해외패션쇼는 그룹박람회 참석 부스 쇼가 아닌 독립적인 바이어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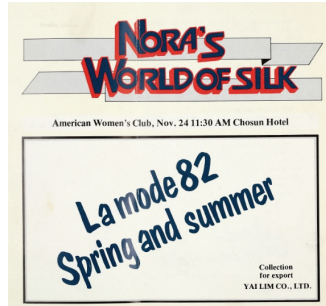
문패션 쇼의 형식을 구축한다. 뉴욕 쇼에서는 신사임당의 그림을 실크 롱드레스에 프린트해 호평을 받았다. 또한 노라노는 국내에서 브랜드를 백화점에 적극적으로 입점 시켜 백화점과 협업 쇼를 기획한다. 중앙일보기사<sup>26)</sup>를 보면 1975년에 『75 화이트·크리머스·패션·쇼』를 퍼시픽 호텔에서 개최해 하이패션 의상과 신세계백화점에서 개발한 스포츠웨어 80여점을 선보인다. 이 쇼의 대표작은 『홈 드레스』, 『퍼 트리밍 슈트』가 있으며 컬러는 중간계열이 많다. 1979년 F/W를 발표하며 현대백화점 본점에 <노라노의 집>이 입점하는데 이 컬렉션의 리플렛에는 『박스실루엣 코트』, 『맥시 스커트』가 주력상품으로 기재되어있다.

1980년대는 노라노가 미국에서 활동한 시기로 국내 패션쇼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다. 리플렛으로 확인되는 것은 『Nora's World of Silk』 패션쇼로 American Women's Club의 초청으로 조선호텔에서 1980년과 1981년 뉴욕에서 출시된 인기 컬렉션라인을 소개하고 있다<그림 2>. 1980년 쇼의 프로그램을 보면 Part A는 ‘겨울 울 컬렉션’, Part B는 ‘가을/겨울 실크 컬렉션’, Part C는 ‘봄여름 실크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총 28벌이 선보이는데 원피스, 블라우스, 점프슈트가 주력이었으며 『튜닉 드레스』와 『오버롤 점프슈트』가 대표디자인이었다. 1982년 S/S 컬렉션을 1981년 11월에 선보인 두 번째 쇼에서 Part A는 ‘겨울 울 컬렉션’, Part B는 ‘봄여름 실크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총 34벌을 발표하고 S/S 컬렉션인 이 쇼에서도 일부 겨울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대표디자인은 『스마크 드레스』와 『점프슈트와 스톨』착장이다. 또한 1989년에는 모피회사와 협업으로 모피, 실크드레스 쇼를 로마에서 개최한다.

1990년대 들어 노라노의 패션쇼 횟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자료로 확인된 것은 청담동 부퓌 이전 직후 패션쇼사진과 『1주년 기념 패션쇼』<sup>27)</sup>의 기사가 코리아 헤럴드(Korea Herald)에 게재되어 있다. 디자인은 노라노 클래식라인과 함께 베릴라인 그리고 실크제품이 주류를 이룬다.



<그림 1> 1958 F/W 『노라·노 팻션쇼』 리플렛  
(출처: 노라노 제공)



<그림 2> 1958 F/W 『노라·노 팻션쇼』 리플렛  
(출처: 노라노 제공)



<그림 3> 어머니의 벨벳치마를 잘라 만든 『벨벳, 이상, 김동원, 1951』  
(출처: 노라노 제공)

<표 2> 근거자료를 통해 추출한 연대별 노라노 패션쇼의 사적 고찰

활동시기	패션쇼	대표디자인	근거	구성 및 특징
1950년대 (1950-59)	1953: 미국 NBC TV를 위한 『미니패션쇼』	썸드레스	패션쇼 사진	-비공식 한국 최초 디자이너 패션쇼
	1956: F/W 『제1회 패션쇼』, 11. 29. 2pm, 반도호텔 그랜드 볼룸	라글란슬리브 코트 / H라인 원피스	패션쇼 사진	-한국 최초 디자이너 패션쇼 (1부:데이웨어, 2부:드레스)
	1957: S/S 『반도호텔 옥상 야외무대 패션쇼』	라글란슬리브 코트원피스 / 블랙트렌치코트	대한뉴스	-노라노 클래식라인
	1957: F/W 『조선포텔 패션쇼』	칼리지패션/ 스피들라인 / H라인 원피스	패션쇼 사진	-노라노 클래식라인
	1958: 『노라·노 팻션쇼』, 05.	색라인/ 뉴욕라인	신문	-좀 더 대중적으로
	1958: 『노라·노 팻션쇼』, 11. 11. 3:30pm, 반도호텔	저고리와 치마에 적용된엠파이어라인 드레스	패션쇼 리플렛	-노라노 클래식라인
1960년대 (1960-69)	1959: 『US Wiver's Club 패션쇼』	아리랑드레스	신문	-아리랑드레스
	1962: 『제9회 노라·노 팻션쇼』, 3. 31. 14pm, 그랜드호텔 7층	트위드/ 울저지 슈트	패션쇼 리플렛	-노라노 클래식라인 -구두와 미용협찬
	1963: 『기성복 패션쇼』, 미우만백화점	클래식라인 슈트/ 원피스	신문	-한국 최초 디자이너기성복 패션쇼
	1964: 『기성복 패션쇼』, 화신백화점	클래식라인 슈트/ 원피스	예림양행자료	-노라노 클래식라인
	1964: 『노라노 고별 패션쇼』, 10. 23. 3:00pm 조선포텔	클래식라인 슈트/ 실크드레스	신문	-1부: 기성복라인, -2부: 하와이수출품
	1965: 『하와이 Fashion Show』, Royal Hawaiian Hotel	실크, 실크혼방, 울, 울혼방 / 슈트와 코트/ 베스트 / 밀리터리 슈트 / 색동가운/ 드레스	패션쇼사진: Hawaiian Times	-첫 해외진출 -하와이 쇼룸 오픈 후 1년 7개월 동안 현지에서활동
	1966: 『살롱패션쇼』	A와 H라인	신문	-하와이에서 귀국 후 첫 쇼
1969: 『면직 기성복 패션쇼』, 06.18, 3:00pm 극동호텔	홈드레스/ 면원피스/ 데님 팬츠슈트/ 24시 회색	패션쇼 리플렛: 신문	-대한방직협회후원 -부산YMCA, 서울신문사주최 -최초여자모델 이희재, 변자영	

활동시기	패션쇼	대표디자인	근거	구성 및 특징
1970년대 (1970-79)	1971: 『목화아가씨 ‘패션쇼』, 05. 31. 7:00pm, 조선호텔 볼룸 06. 01, 7:00pm, 시민회관	햇팬츠/ 테일러드 슈트 / 비치웨어 / 면, 마직, 혼방, 타올지	신문	-면직과 혼방직물을 사용한100여점의 기성복을 선보임. 시민회관 패션쇼는 목화사컬패트리스 패리가 모델로 활약
	1972: 가을 파리 『프레타 포르테 박람회』, 포르트 베르사유	구체적인 자료 없음 / 실크와 원피스	신문	-상공부/ 코트라 후원 -첫 번째 파리진출
	1973: 봄 파리 『프레타 포르테 박람회』, 03. 30 - 04. 05. 포르트 베르사유	주니어를 위한 클라운스타일 / 바둑무늬에 흠자를 새겨 넣은 실크 레이프원피스 / 기하학패턴	신문	-상공부와 코트라 후원 -실크를 주력으로 맥시스타일을선보임. -샤스 피프스 -에비뉴백화점에서스타일별 60벌씩 주문.
	1973: 가을 파리 『프레타 포르테 박람회』, 10. 21 - 25. 포르트 베르사유	기하학패턴/ 꽃무늬패턴	사진 : 신문	-10여 업체 350벌 2만불상당 수주
	1974: 『건직물 바이어 패션쇼』, 10. New York Plaza Hotel	신사임당 그림패턴 실크 롱드레스	패션쇼 리플렛: 신문	-상공부와 대한잠사협회후원 -미국시장진출결심
	1975: 『75·화이트·크리머스·패션·쇼』 12. 15. 신세계백화점주최,퍼시픽호텔	홈드레스 퍼 트리밍 슈트 / 중간계열의 컬러	사진 : 신문	-노라노의 하이패션의상과 신세계가 개발한 스포츠웨어 80여점을 선보인 협업쇼.
	1979: F/W 『현대백화점 패션쇼』 현대백화점 본점 노라노의 집 오픈기념	박스실루엣 코트 / 맥시스커트	패션쇼 리플렛	-현대백화점 매장오픈
1980년대 (1980-89)	1980: 『Nora's Word of Silk』, American Women's Club, 11. 25. 11:30am, 조선호텔	튜닉드레스 / 오버롤 점프슈트	패션쇼 리플렛	-미국법인 설립 후 국내거주 미국인을 위한 국내 패션쇼
	1981: S/S 『Nora's Word of Silk』, American Women's Club, 11. 24. 11:30am, 조선호텔	스마크드레스 / 점프슈트와 스톨	패션쇼 리플렛	-미국법인 설립 후 국내거주 미국인을 위한 국내 패션쇼
	1989: 『Rome Silk Dress Show』	실크패턴드레스	패션쇼 리플렛: 신문	-이탈리아 모피회사와 협업
1990년대 (1990-99)	1991: 『청담동 사옥 기념 패션쇼』	베럴라인/ 플레어라인	패션쇼 사진	-클래식라인으로 회귀

### III.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노라노 디자인의 시대별 유형 분석

본 장에서는 노라노 소장디자인과 인쇄매체에 수록된 디자인을 분석하여 노라노 디자인의 시대별 유형을 고찰한다<표 3>.

#### 1. 1950년대 스타일혼재기: 역할복시대, 한복과 파리 쿠티르의 영향을 받은 디자인

1950년대는 역할복시대로 한복과 서양복의 형식이 혼재된 ‘스타일혼재기’이며 이 시기는 초기 ‘무대의상 시대’와 후기 ‘영화의상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노라노는 1949년 신당동 <노라노양장점> 오픈 후 한국거주 외국인들과 외교관부인들의 파티복을 제작하고 이후 전쟁 중 연극협회 신협, 미8군 가수 그리

고 여성국극 임춘앵을 위해 무대의상을 디자인하며 성장한다. 물자가 부족했던 이 시기 노라노는 고객들이 직접 가져온 캐시미어, 브로케이드(brocade)와 같은 수입복지<sup>28)</sup>나 갑사와 양단과 같은 한복원단을 이용해 맞춤형장을 디자인한다. 노라노는 신협이 섹스 피어의 연극의상<sup>29)</sup>을 디자인하며 서양복식의 실루엣을 익히고, 『은장도』<sup>30)</sup>를 통해 사극의상을, 미8군 가수들의 무대복을 디자인하며 드레스라인의 기본을 습득한다. 또한 여성국극(창극) 임춘앵의 의상을 통해 남성한복<sup>31)</sup>을 재해석하는데 이 시기가 디자인의 기본을 다진 ‘무대의상시대’이다. 노라노는 양장점 오픈 첫째 인도대사부인이 가져온 인도 전통복지 사리로 제작한 『사리드레스(Sari dress, 1949)』<sup>32)</sup>를 디자인했다. <그림 10>은 미8군 가수 유정희를 위한 『키스 오브 파이어 드레스(Kiss of Fire dress, 1952)』<sup>33)</sup>로 블랙과 베이지의 컬러배열이 돋보이는 이브닝드레스이다. 이외에도 신협 무희들을 위한 브라 탑과 랩스커트 착장의 『새틴 롬바드레스(1950)』<sup>34)</sup>, <그림 3>의 어머니 벨벳 치마를 잘라 만든 핏팅 김동원을 위한 『벨벳케이프(1951)』<sup>35)</sup>, NBC를 위한 미니패션쇼 이후 찍은 기념사진에서 볼 수 있는 박혜옥을 위한 팔과 어깨를 드러낸 여름용 『썸드레스(1953)』가 있다.

1955년 명동매장이전과 1956년 국내모직생산을 기점으로 노라노는 서양복스타일에 주력한다. 당시 미국에서 유행했던 플레어 원피스를 출시하며 1956년 초 노라노는 칼리지패션<sup>36)</sup>을 선보이고 이후 원피스는 노라노 디자인의 주력아이템이 된다. 프랑스 연수이후 반도호텔에서 열린 한국 최초의 디자이너 패션쇼에서 파리의 최신트렌드를 담아내며 주목받는데 이후 한국 패션트렌드의 산실인 영화의상디자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이 시기가 ‘영화의상시대’이다. “최은희 주연의 『은장도, 1955』, 『꿈, 1955』, 『춘희, 1959』, 『자매의 화원, 1959』, 엄앵란의 『꿈이여 다시 한 번, 1959』, 『동심초, 1959』, 『젊은이의 양지, 1960』, 『배신, 1963』, 최지희의 『아름다운 악녀, 1958』, 『자매의 화원, 1959』, 조미령의 『교차로, 1956』,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1956』, 김지미의 『양귀비, 1962』 등<sup>37)</sup>의 이미지가 노라노와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고 이들의 스타일이 대중에게 빠르게 확산된다. 이 중 오드리 헵번을 모티브 한 ‘엄앵란스타일’, 요염한 여인의 캐릭터를 만든 ‘최지희스타일’ 등이 노라노가 만든 대표이미지이며 이로 인해 기존의 특수 직업군만을 위한 무대복에서 영화 속 배우들의 일상복을 디자인하며 일반인을 위한 디자인라인을 전개한다. 영화의상시대의 컬렉션라인은 일반인들의 착용이 가능한 일상복과 한복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아리랑드레스 스타일인 파티복라인이 기본구성이었는데 일상복은 파리 최신 트렌드를, 파티복은 한국 전통복식을 재해석한 디자인을 전개한 것이다. 1957년 가을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패션쇼 사진인 <그림 5><sup>38)</sup>를 보면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스핀들라인과 발렌시아가의 베릴라인이 재현된 듯하다. 왼쪽에서 첫 번째 장은영과 오른쪽에서 세 번째 엄미리의 코트는 베릴라인을, 왼쪽 끝 정경술의 원피스는 칼리지패션을, 나머지 의상들과 <그림 4>의 세레나 한의 드레스는 디오르의 H라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림 11>은 1957년 S/S 제2회 반도호텔 야외 패션쇼에서 선보인 여름용 『라글란슬리브 코트원피스』<sup>39)</sup>로 뒤트임을 주어 움직임이 편하게 한 디자인이며 캐기원단으로 만든 일반인 박영애의 약혼복 『코튼 아일렛원피스(1957)』<sup>40)</sup>, 김유희를 위한 『시폰 스완클드레스(1957)』<sup>41)</sup> 역시 이 시기 디자인이다. 1959년은 노라노가 가장 활발히 활동한 시기로 많은 자료가 남아있다. <그림 12>는 1950년대 노라노 칼리지패션의 전형을 보여주는 『플레어 스커트 원피스(1959)』이고 <그림 13>은 엄앵란이 영화 『미부』 수상을 위해 동경영화제에 참석할 때 착용한 『양단 칩테일드레스(1959)』이다. 영화 『춘희』의 포스터에서 최은희가 착용한 모자는 노라노가 1956년 니나리치 쇼에서 스웨이드 장갑은 파리에서 구입한 것이며 극중에 최은희의 『화이트 투피스(1959)』<sup>42)</sup>도 대표작이다. <그림 14>는 한복을 드레스화한 『US Wives' Club 패션



쇼』에서 선보인 최저희가 입은 『블루 양단 이브닝드레스(1959)』이며 당시 이러한 콘셉트로 디자인된 드레스는 같은 쇼에서 남미리가 착용했던 『용무늬 수양단 이브닝드레스(1959)』<sup>43)</sup>, <그림 15>의 미스코리아 오현주가 미스유니버시티대회 개최식 때 착용한 『아리랑드레스(1959)』<sup>44)</sup>가 있다. 오현주의 드레스는 옥색과 곤색 양단에 은박과 큐빅이 조화롭게 장식된 것으로 양단 15마, 시폰 30마로 제작된 것이다.

## 2. 1960년대 스타일정립기: 프레타 쿠튀르 시대, 패션리더들을 위한 디자인

1960년대는 프레타 쿠튀르시대로 노라노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정립한 시기이다. 1956년 가을컬렉션 이후 노라노는 년 2회 패션쇼를 열고 1963년 최초의 디자이너 기성복 패션쇼를 미우만백화점에서 개최한 이래로 한사람을 위한 맞춤복에서 패션쇼에 선보인 디자인을 주문받아 제작해주는 프랑스식 ‘프레타 쿠튀르’로<sup>45)</sup> 브랜드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기존의 맞춤복과 함께 고급기성복라인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노라노는 1950년대 주력상품인 파티복과 무대복라인을 대폭 축소하고 데이웨어 중심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1965년에는 하와이에 쇼룸을 열고 디자인을 수출하는데 수출품에는 태극레이블을 달았다. 이전 시기가 역할복을 원하는 특수계층이나 부유층 고객을 위해 디자인했다면 이 시기에는 패션리더들

을 위한 디자인을 전개하며 자신의 스타일 확산에 집중한다. 시나리오 캐릭터를 읽어 맞춤 제작했던 영화의상디자인을 지속하면서 새롭게 도입한 기성복라인의 드라마협찬<sup>46)</sup>과 윤복희, 펠시스터즈 등의 무대의상을 받 빠르게 기성복으로 출시하면서 노라노는 자신의 스타일을 대중에게 알린다.

1960년대 중반까지 노라노는 한복원단인 양단과 갑사를 사용했으며 이 시기 초 미아리 지역에서 생산된 수자직 실크인 미아리 실크로 원피스라인을 디자인하는데 <그림 16>은 일반인고객 공영란의 『스트라이프패턴 미아리실크원피스(1960)』<sup>47)</sup>이다. 이외에도 미아리 실크로 제작한 디자인은 『녹색 슬리브리스원피스(1965)』<sup>48)</sup> 발렌시아가의 영향을 받은 『보라색 튜닉 실크원피스(1967)』<sup>49)</sup>가 있다. <그림 17>은 엄앵란 주연의 영화 『배신』을 위한 『갑사 원피스 코트 앙상블(1963)』이며, <그림 18>은 하와이 패션 쇼<sup>50)</sup> 쇼룸 전경으로 한복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양단 이브닝드레스(1965)』를 일반인 모델이 착용하고 있다. <그림 20>은 윤복희의 『옷은 얼굴다정해도』를 위해 디자인한 『화이트 포인트 블랙미니드레스(1967)』<sup>51)</sup>이며, <그림 19>는 펠시스터즈의 『커피한잔』을 위한 『판탈롱스타일(1968)』로 미니와 히피에 심취한 젊은이들의 감성을 읽어낸 디자인이다. 또한 1960년대 중반부터 노라노는 1980년대 자신의 디자인인 캐릭터가 된 프린트 패턴을 선보이는데 홍기혜의 『하이네크 기하학 슬리브리스 원피스(1968)』<sup>52)</sup>가



<그림 4> 세계은행의 세레나 한, 1950년대 (출처: 노라노 제공)



<그림 5> 1957년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패션쇼』 직후 기념 촬영 (출처: 노라노 제공)



<그림 6> 노라노소장 대표디자인들, 왼쪽은 『엔지니어프린트 원피스, 1973』, 오른쪽은 『하운즈스 튜닉 앙상블, 1969』 (출처: 노라노 면담 시 촬영)

이 시기 주목할 작품이고 <그림 6>의 오른쪽 작품 『하운즈 투스 패턴양상블(1969)』<sup>53)</sup> 역시 노라노의 대표 클래식라인 중 하나이다.

### 3. 1970년대 디자인차별화기: 기성복시대, 우리원단과 수출을 위한 디자인

1970년대는 노라노가 판매뿐만 아니라 생산에서도 기성복 시스템을 정립한 시기로 우리원단을 사용한 수출용라인을 전개하며 디자인차별화에 성공한다. 이 시기 노라노 디자인의 핵심은 ‘실크’와 ‘프린트 패턴’이었는데 이것이 1990년대 초반까지 노라노 패션의 아이덴티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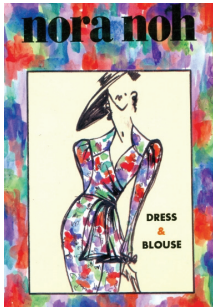
노라노는 1972년 F/W부터 1973년 S/S와 F/W시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상공부 산하 코트라(Kotra)의 지원으로 파리 프레타 포르테 박람회에 참석한다. 당시 코트라 전시과장 김익영<sup>54)</sup>은 1960년대 섬유산업의 발달로 품질이 좋아진 우리견직물을 사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양장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sup>55)</sup>로 노라노를 지원한다. 파리박람회는 상설 부스에서 간단한 바이어 쇼로 진행되었고 당시 한국인 모델과 현지인 모델이 함께 디자인을 착용했다<그림 21>, <그림 22>. 패션쇼 분석에서 밝혀졌듯이 1973년 S/S 박람회에서는 노라노는 삭스 피프스 애비뉴백화점에서 제품 수주를 받아 고급기성복시장 수출의 문을 연다. <그림 21>, <그림 22>는 1973년 F/W 박람회 바이어 쇼 장면인데 주력아이템은 기하학 혹은 꽃무늬 실크 프린트 패턴 원피스였고 실크 블라우스와 스커트도 함께 선보여 유럽과 미국 업체 10여 곳에서 디자인을 수주 받는다. 노라노가 우리원단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확인하고 수출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은 1974년 상공부와 대한잡사협회의 후원으로 뉴욕에서 『견직물바이어패션쇼』를 개최한 직후이다. <그림 23><sup>56)</sup>은 당시 출품작으로 신사입당 그림 중 꽃무늬, 나비 등을 패턴화해 실크 롱 원피스를 디자인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노라노는 기성복 패션쇼<sup>57)</sup>를 열며 디

자인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낮은 국민소득과 드라이클리닝 시스템이 보급되지 않은 사회적 환경에서 고급기성복의 국내 수요는 미흡했고 이러한 이유로 노라노는 이 시기부터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디자인을 전개한다. 해외브랜드들의 OEM생산수주로 국내 봉제 기술력 향상으로 1960년대 발전된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 수출전략 제품화에 힘썼던 상공부의 협조로 해외패션쇼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노라노가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디자인을 전개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또한 선경(SK)과의 협업으로 프린트 패턴을 개발해 디자인을 차별화하고 미국제품을 수주 받았던 선경의 OEM생산을 맡아 해외 고급기성복시스템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도 1980년대 기성복라인 수출의 발판이 되었다. <그림 6>의 왼쪽 작품은 1973년 S/S 『파리 프레타 포르테 박람회』 출품작인 『엔지니어 프린트 원피스(1973)』로 삭스 피프스 애비뉴백화점에 납품한 디자인 중 하나이며 당시 60벌을 주문받았다. 얇은 견직물인 판지실크(pongee silk)에 기계로 프린트한 이 원피스는 스커트에 볼륨감을 주기 위해 플레인 거즈(plain gauze)가 없었던 당시 노방을 안감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림 24><sup>58)</sup>는 『퍼트리밍 코트와 판탈롱 팬츠(1975)』이며 <그림 25>는 가수 최영희가 입은 『스카이블루 슬리브리스 미니드레스(1965)』로 유행아이템 메리제인 슈즈로 스타일을 완성하고 있다.

### 4. 1980년대 소재와 프린트패턴 특성화기: 산업화시대, 커리어우먼을 위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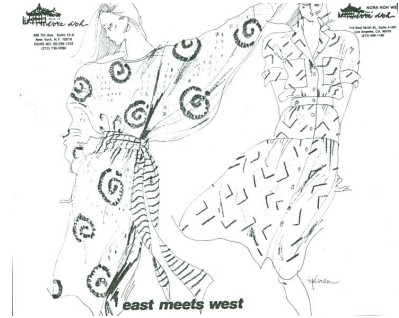
1980년대는 산업화시대로 노라노가 미국시장에 진출해 커리어우먼을 위한 디자인라인을 전개한 시기로 소재와 프린트패턴을 특성화한 시기이다. 국산실크와 비스코스, 린넨에 다양한 패턴을 프린트한 소재는 노라노 디자인의 경쟁력이었다. 세계적인 트렌드의 영향도 있었지만 노라노가 프린트 패턴디자인을 필두로 미국 시장을 공략한 이유는 디자인 복제 때문이다. 1980년대



<그림 7> 1980년대 노라노 브랜드 일러스트레이션 (출처: 노라노제공)



<그림 8> 노라노의 컬렉션 드로잉, 1986 (출처: 노라노제공)



<그림 9> 노라노 광고 일러스트레이션, 1980년대 중반 (출처: 노라노제공)

미국시장에서는 저가의 원단으로 대체가 쉬운 솔리드 원단으로 제작된 디자인의 경우 유행하자마자 복제되어 정가판매가 힘들었으므로 복제가 어려운 독자 프린트 패턴디자인개발은 브랜드의 경쟁력이었다. 일부를 제외하고 기성품을 사용하던 1970년대와 다르게 직영 공장을 운영하며 프린트 패턴디자인을 직접 관장한 1980년대는 소재특성화를 통해 노라노가 자신만의 색깔을 완성한 시기이다. 노라노가 프린트패션과 실크를 주력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안산반월공단의 논스톱 제품생산시스템으로 고급기성복제작<sup>55)</sup>환경이 조성되었고, 둘째 수출산업규제가 있던 당시 천연섬유인 실크나 린넨(linen)으로 만든 제품은 규제 없이 미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기<sup>60)</sup>때문이다.

1980년대 노라노는 지역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차별적으로 선보였는데 보수적인 국내시장에서는 솔리드라인을 디자인특성화가 필요한 미국시장에는 프린트라인에 주력한다. 또한 제품회전이 빠르고 규모가 큰 미국시장은 지역별 기후와 트렌드를 분석해 1983년 뉴욕을 거점으로 하는 <Nora Noh East>, 로스앤젤레스와 달라스를 위한 <Nora Noh West>로 레이블을 분리<sup>61)</sup>해 이스트는 실크를 사용한 고급품을, 웨스트는 린넨과 비스코스를 중심의 세미라인을 전개하며 디자인을 차별화한다. 더불어 미국법인 이외에 모회사인 (주)예림양행의 사무실을 현지에 두고 해외브랜드의 원단을 OEM으로 생산해 프린트 디자인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규모가 큰 시장의 리스크를 줄인다. 미국시

장을 위한 디자인라인 전개방식은 솔리드착장을 기본으로 다양한 패턴라인을 선보이고 인기상품의 경우는 프린트패턴디자인만을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 디자인 순환 율을 높인다. 웨스트와 이스트의 시즌 콘셉트는 동일하나 웨스트를 캐주얼한 저가라인으로 진행하고 히트상품의 경우는 소재만 변경<sup>62)</sup>하여 웨스트와 이스트 모두에서 판매하는 전략을 세운다.

이를 위해 노라노는 스타일번호 체계를 4개의 숫자로 일원화해 첫 숫자는 제작년도, 두 번째는 프린트 패턴의 유무, 나머지 두 숫자는 디자인으로 표기한다.<sup>63)</sup> 또한 실크를 주력으로 하는 웨스트라인의 경우는 엔지니어 프린트 이외에 투톤염색 핸드프린팅인 옴브레(ombre)기법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담아낸다. <그림 7>, <그림 9>의 브랜드 홍보 일러스트레이션에 기재되어있듯이 주력아이템은 프린트패턴, 블라우스와 드레스라인이며 특히 1950년대부터 디자인에 적용한 라글란슬리브 그리고 실크와 같은 부드러운 섬유의 드레이 핑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램 실루엣의 디자인이 많았다. 또한 점프슈트도 이 시기 대표아이템이다. <그림 8><sup>64)</sup>은 1986년 컬렉션드로잉으로 노라노의 램 원피스와 블라우스라인의 디자인 전개과정을 볼 수 있다. <그림 26>은 『1045』 모델로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 쇼윈도우에 진열된 디자인이다. <그림 27>은 미국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디자인으로 1985년부터 1989년까지 판매된 『5175(1985)』<sup>65)</sup>로 블랙과 베이지 스트라이프 실크

〈표 3〉 1950-90년대 노라노 디자인의 시대별 유형 분석<sup>66)</sup>

활동 기간	디자인 유형					
<p>1950년대 (1950-1959)</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data-bbox="328 656 478 801"> <p>〈그림 10〉 『키스 오브 파이어 드레스』, 1952, 사진은 영화배우 문혜란이 착용 (출처: 노라노 제공)</p> </div> <div data-bbox="485 656 621 743"> <p>〈그림 11〉 반도호텔 『제2회 패션쇼』, 1957 (출처: 대한뉴스)</p> </div> <div data-bbox="642 656 763 763"> <p>〈그림 12〉 『플레이어 스커트 원피스』, 1959, (출처: La Vie en Rose 전)</p> </div> <div data-bbox="785 656 921 763"> <p>〈그림 13〉 『업앤라를 위한 양단드레스』, 1959 (출처: La Vie en Rose 전)</p> </div> <div data-bbox="942 656 1078 782"> <p>〈그림 14〉 『블루 양단드레스』, 모델 최치희, 1959 (출처: U.S. Wives Club)</p> </div> <div data-bbox="1099 656 1235 763"> <p>〈그림 15〉 『아리랑드레스』, 1959 (출처: 현대의상박물관)</p> </div> </div> <p>▶ 스타일원천기: 역할복시대, 한복과 파리 쿠티르의 영향을 받은 디자인</p>					
<p>1960년대 (1960-1960)</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data-bbox="328 1130 492 1217"> <p>〈그림 16〉 『미아리 실크 원피스』, 1960 (출처: 노라노 제공)</p> </div> <div data-bbox="514 1130 628 1226"> <p>〈그림 17〉 『배신』의상, 1963 (출처: 노라노 제공)</p> </div> <div data-bbox="649 1130 849 1217"> <p>〈그림 18〉 『이브닝드레스』, 하와이 패션쇼 쇼룸, 1965 (출처: 노라노 제공)</p> </div> <div data-bbox="863 1130 1056 1217"> <p>〈그림 19〉 펄 시스터즈를 위한 기성복 무대의상, 1968 (출처: 노라노 제공)</p> </div> <div data-bbox="1071 1130 1235 1217"> <p>〈그림 20〉 윤복희를 위한 미니원피스 무대의상, 1967 (출처: 노라노 제공)</p> </div> </div> <p>▶ 스타일정립기: 프레타 쿠티르시대, 패션리더들을 위한 디자인</p>					
<p>1970년대 (1970-1979)</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data-bbox="328 1555 499 1661"> <p>〈그림 21〉 『기하학패턴 원피스』, 가을 『파리 프레타 포르테 박람회』, 1973 (출처: 노라노 제공)</p> </div> <div data-bbox="514 1555 635 1690"> <p>〈그림 22〉 『꽃무늬패턴 롱 원피스』, 가을 『파리 프레타 포르테 박람회』, 1973 (출처: 노라노 제공)</p> </div> <div data-bbox="664 1555 835 1661"> <p>〈그림 23〉 견직물 바이어 패션쇼에서 선보인 『신사임당 실크드레스』, 1974 (출처: 노라노 제공)</p> </div> <div data-bbox="863 1555 1049 1680"> <p>〈그림 24〉 『퍼 트리밍 코트와 관탈롱 팬츠』, '75 『화이트 크리스마스』, 패션쇼, 1975 (출처: 노라노 제공)</p> </div> <div data-bbox="1063 1555 1242 1690"> <p>〈그림 25〉 『슬리브리스 미니 원피스』, '75 『화이트 크리스마스』, 패션쇼, 1975 (출처: 노라노 제공)</p> </div> </div> <p>▶ 디자인차별화기: 기성복시대, 후원단과 수출을 위한 디자인</p>					

활동 기간	디자인 유형
<p>1980년대 (1980-1989)</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lt;그림 26&gt; 메이시스 백화점에 진열된 『1045』, 1980 (출처: 노라노 제공)</p> <p>&lt;그림 27&gt; 5년 동안 판매된 『5175』, 1985-89 (출처: 노라노 제공)</p> <p>&lt;그림 28&gt; 국내판매 드레스 (왼쪽 1982: 오른쪽, 80년대) (출처: 노라노 제공)</p> <p>&lt;그림 29&gt; 『점퍼 슈트』, 1980년대 중반 광고. (출처: California Apparel News Magazine)</p> <p>&lt;그림 30&gt; 『프릴슬리브 랩원피스(우), 백드레이프 라글란 블라우스(좌)』, 1987 S/S. (출처: 노라노 제공)</p> <p>▶ 소재와 프린트패턴 특성화기: 산업화시대, 커리어우먼을 위한 디자인</p>
<p>1990년대 (1990-1999)</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lt;그림 31&gt; 청담동 쇼룸에 진열된 노라노 아동복라인, 1991. (출처: 노라노 제공)</p> <p>&lt;그림 32&gt; 『그레이 슈트』, 쇼룸오픈기념 컬렉션, 1991 F/W. (출처: 노라노 제공)</p> <p>&lt;그림 33&gt; 『투피스』, 1992 (출처: La Vie en Rose 전)</p> <p>&lt;그림 34&gt; 『모직코트』, 1993 (출처: La Vie en Rose 전)</p> <p>&lt;그림 35&gt; 『쓰리피스 슈트』, 1997 (출처: La Vie en Rose 전)</p> <p>&lt;그림 36&gt; 할인점 브랜드 &lt;노라&gt;의 슈트, 1998 (출처: 한국일보)</p> <p>▶ 클래식라인의 회귀기: 절충시대, 고정고객과 대중을 위한 디자인</p>

원피스이다. 이 디자인의 특징은 뒤 벨트 선을 고무줄로 처리해 활동을 편하게 한 것이다. <그림 29>는 캘리포니아 뉴스 매거진 광고사진으로 『점퍼 슈트(1980년대 중반)』이며 <그림 30>은 『프릴슬리브 랩 원피스(1987)』와 『라글란슬리브 블라우스(1987)』이다. <그림 28>은 국내 고객 소장품으로 블루와 퍼플 룩드레스이다.

### 5. 1990년대 클래식라인의 회귀기: 절충시대, 고정고객과 대중을 위한 디자인

1990년대는 프린트패턴라인을 축소하고 클래식 라인으로 회귀한 절충의 시대로 이시기 노라노는 고정고객과 대중을 위한 디자인에 주력한다. 대량 생산브랜드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하이 패션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직영체제 구축으로 1990년대 세계패션시장은 급변했고 노라노는 미국사업을 정리하고 아시아와 국내시장으로 복귀한다. 1990년대

노라노 디자인은 이전 시기 디자인 캐릭터가 명확했던 프린트 패턴라인을 축소하고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 프랑스 연수 이후의 자신의 클래식라인으로 회귀한다. 노라노가 클래식라인으로 디자인패턴을 전환한 이유는 첫째는 보수적인 국내고정고객을 위해서 이미 솔리드라인을 기본으로 디자인이 전개되어왔고, 둘째로 세계의 트렌드가 이미 화려하고 과시적인 것이 아닌 심플한 스타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명동에서 청담동사옥으로 1989년 사옥을 이동하고 플리그 쉽 스토어를 연 노라노는 토털패션사업을 시작하며 여성복이외에 아동복, 패션잡화, 침구, 도자기까지 디자인영역을 확장하며 브랜드 고급화에 힘썼는데 이는 노라노가 1950년대 파리의 쿠티르 부티크를 방문했을 때부터 계획했던 것<sup>67)</sup>이다. <그림 31>은 청담동 매장이전 직후 노라노 부티크에 진열된 아동복제품으로 오른쪽 여아의 원피스는 프랑스 프로방스지역의 전통의상스타일이다. 디자이너의 부모가 시작되었던 1996년 노라노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할인점 전용브랜드 <노라>를 출시하며 15개의 할인점에 심플한 스타일의 슈트라인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며 대중을 위한 디자인을 선보였고 1997년 IMF를 계기로 토털패션을 접고 여성복라인만을 남기며 브랜드를 축소한다. <그림 32>는 청담동 부티크 쇼에서 이인호<sup>68)</sup>가 착용한 『그레이 슈트(1991)』이며, <그림 33>은 클래식라인 『투피스(1992)』, <그림 34>는 『포 버튼 모직코트(1993)』<sup>69)</sup>로 소매의 암홀선이 가슴까지 들어와 있고 어깨선부터 소매 판을 손목 심라인까지 두 부분으로 분리시켜 볼륨감과 입체감을 살린 디자인이다. <그림 35>는 차이나 칼라 패턴블라우스에 앞 슬릿이 들어간 미디스커트와 베릴라인 코트를 매치시킨 『쓰리피스 슈트(1997)』이다. <그림 34>, <그림 35>는 1956년 파리연수직후의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의 영향을 받은 노라노 클래식라인의 디자인 특성이 담겨있다. <그림 36>은 플레이어라인 반코트

에 슬림 팬츠를 착장한 『블랙슈트(1998)』로 노라노의 디자인실장 정금라의 주도로 진행된 할인점 전용브랜드 <노라>의 대표작이다.

#### IV. 노라노 패션쇼와 디자인 특성 고찰 결과

본 장에서는 II장과 III장에서 고찰된 노라노 패션쇼와 디자인의 시대적 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한국패션디자이너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컬렉션과 디자인 특성을 추출하였다.

##### 1. 패션쇼 분석

노라노 소장 리플렛과 인쇄매체자료 분석결과 근거가 명확한 패션쇼는 총 25건이 밝혀졌고 추출된 패션쇼 중 한국패션디자이너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컬렉션은 다음과 같다<표 3>. 1953년의 NBC를 위한 『미니 패션쇼』는 비공식 한국 최초의 패션쇼이며, 1956년 『반도호텔 패션쇼』는 한국 최초 디자이너패션쇼이었다. 또한 1963년 『미우만백화점 패션쇼』는 한국 최초 디자이너 기성복패션쇼로 이 시기 이후 백화점에 ‘디자이너 코너’들이 입점 되기 시작했다. 1965년의 『하와이 패션쇼』는 1960년대 이미 한국 패션디자이너가 해외시장에 진출했음을 증명했다. 1969년과 1971년에는 대한방직협회 후원으로, 1974년 대한잠사협회 후원으로 패션쇼가 개최되었는데 이 컬렉션들을 통해 노라노의 디자인과 면, 실크 등 우수한 우리원단이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1972년과 1973년에 걸쳐 3차례 참석한 『포트 베르사유 파리 기성복 박람회』에서 노라노는 제품을 수주 받으며 해외진출의 성과를 얻기 시작하였다. 이 중 1969년 『면직물 기성복 패션쇼』에서는 제1세대 패션모델이 선발되었고, 같은 해 봄 박람회에서는 삭스 피프스 에비뉴 백화점에 디자인을 납품

했고 1973년 가을 박람회에서는 유럽과 미국 10여 업체에서 350만 불상당의 제품을 수주 받았다. 1974년 뉴욕 쇼를 통해 우리 실크의 경쟁력을 본 노라노는 이를 계기로 미국시장 진출을 결심했다. 노라노 해외진출에 결정적 계기가 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의 행사는 모두 상공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당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읽을 수 있었다. 1970년대 중반이후에는 디자이너 주최의 단독 쇼 보다는 백화점주최의 협업 쇼가 기획되었고 대표적인 예가 『75 화이트·크리머스·패션·쇼』와 1979년의 현대백화점 <노라노 코너> 오픈 기념 패션쇼이었다. 1980년대는 미국에서 바잉 쇼를 지속하면서 American Women' Club의 초청으로 한국 거주 미국인들을 위한 패션쇼를 국내에서 진행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는 플래그 쉽 스토어 내에서 『부딕 쇼』를 열었다.

## 2. 디자인 특성 추출

본 연구의 결과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노라노 디자인의 시대별 유형은 1950년대 ‘스타일 혼재기’, 1960년대 ‘스타일 정립기’, 1970년대 ‘디자인 차별화기’, 1980년대 ‘소재와 프린트패턴 특성화기’, 1990년대 ‘클래식라인 회귀기’로 추출되었고 분석된 디자인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표 4>.

‘스타일 혼재기’인 역할복시대 1950년대는 노라노가 한복과 파리 쿠티르들의 영향을 받은 디자인을 선보인 시기였다. 초기 신희, 미8군, 여성국극의 무대 의상과 외교관부인들의 드레스, 영화의상과 같은 역할복을 디자인하며 트렌드를 만들어간 이시기는 초기 ‘무대의상시대’와 중·후기 ‘영화의상시대’로 구분되며 영화의상시대의 컬렉션은 크게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스핀들라인과 H라인,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의 베릴라인의 영향을 받은 일상복라인과 한복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아리랑 드레스라인으로 구분되며, 소재는 갑사, 양단, 캐시미어, 브로드케이드 울

등이 사용되었다. 한국 패션디자이너의 일면을 보여준 이 시기 대표디자이너는 전쟁 중에도 문화가 있었을 증명한 김동원을 위한 『햄릿의상(1951)』, 해외의 트렌드를 반영한 『제1회 반도호텔 패션쇼, 1956』 작품 그리고 한국의 미를 알린 오현주의 『아리랑드레스(1959)』 등이 있으며 주요고객은 특수직업군, 영화배우, 부유층이었다. 역할복시대 노라노 디자인의 속성은 규정적이며 영속적이고 보수적이었다. 제시된 주제에 맞게 디자인해야했던 무대의상기에는 자유로운 콘셉트 보다는 규정된 환경 속에서 역할복을 디자인했고 1956년 파리연수이후 영화 의상기에는 보수적인 특수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클래식라인을 만들어내며 노라노만의 디자인 영속성을 구축했다.

‘스타일 정립기’인 프레타 쿠티르시대 1960년대는 노라노가 패션리더들을 위한 디자인을 전개한 시기였다. 브랜드의 대중화를 계획하여 맞춤복에서 프레타 쿠티르로 디자인 방향을 전환하며 노라노는 이 시기 기성복시대의 전초를 열었다. 맞춤 영화의상과 함께 기성복을 드라마의상으로 협찬했고 가수들의 무대의상을 즉시 기성복으로 생산하여 판매해 패션리더들의 스타일을 젊은이들에게 전파했다.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라인복과 함께 미니, 판탈롱이 이 시기 스타일이며, 초기에 사용한 한복원단과 함께 미아리 실크, 면, 울, 울 혼방, 실크, 실크혼방, 데님 등을 활용해 이전보다 다양한 디자인라인을 전개했다. 한국패션디자이너의 일면을 보여준 대표디자이너는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보여준 윤복희의 『미니 캣테일드레스(1967)』, 펠시스터즈의 『판탈롱 스타일(1968)』 등이 있으며 이 시기 주요고객은 연예인, 부유층과 중산층이었다. 프레타 쿠티르시대 노라노 디자인의 속성은 개방적이며 동시대적이고 상업적이다. 이 시기는 노라노가 가장 공격적으로 디자인을 전개한 시기였다. 1963년부터는 기성복매장을 미우만백화점에 오픈하며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고 중반이후에는 파리의 트렌드와 한복을 모티브로 한 역할복시대의 초기 클래식라인의 패턴을 축소하고 유스패션의 트렌드를 적극

적으로 디자인에 반영했다. 새로운 소재 역시 개방적으로 수용했는데 양단과 갑사와 같은 한복원단에서 벗어나 국산 면과 실크를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디자인과 소재 모두에서 즉시적으로 트렌드를 받아들이며 대중을 위한 상업디자인을 선보였다.

‘디자인차별화기’인 기성복시대 1970년대는 노라노가 수출과 내수디자인을 분리했고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으로 우리원단을 사용해 디자인라인을 전개한 시기였다. 수출용은 직접 디자인한 프린트패턴원단으로 제품경쟁력을, 내수시장은 백화점 코너 납품을 위한 기성복 생산체제를 구축해 가격경쟁력을 높였다.

프린트패턴, 맥시, 미니, 판탈롱이 주류를 이루었고, 미아리실크 면, 울, 울 혼방, 실크, 실크 혼방 등 우리소재가 사용되었다. 한국 패션디자인사의 일면을 보여준 대표디자인은 삭스 피프스 백화점에 첫 납품한 『엔지니어 프린트 원피스(1973)』와 우리 실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신사임당 실크드레스(1974)』 등이 있으며, 주요고객은 부유층과 중산층이었고 제품 수출로 인해 해외고객이 생겨났다. 기성복시대인 1970년대 노라노 디자인의 속성은 영속적이면서 동시대적이고 상업적이었다. 노라노는 이 시기 스타일정립기의 실험을 바탕으로 노라노 디자인의 기본인 ‘원피스’, ‘실크’,

<표 4> 노라노 디자인 시대별 특성 고찰

분석 활동시기	제작 방식	시대별 유형 및 특징	주력시장 및 고객	스타일	원단	대표 아이템	디자인 모티프	속성
1950년대 (1950-59)	오트 쿠튀르 (맞춤복)	스타일 혼재기 : 역할복 시대	-국내(양장점) -특수직업군 의 무대의상 -영화의상 -부유층	-극의상 -칼리지패션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라인룩 -크리스토팔발렌 시아가의 베릴라인	-갑사, 양단 -캐시미어,브 로케이드, 울(고객이 가져옴)	-역할복 -파티복 -아리랑 드레스	-한복 -칼리지패 션 -파리트렌 드	-규정적 -영속적 -보수적
1960년대 (1960-69)	프레타 쿠튀르/ 기성복	스타일 정립기 : 프레타 쿠튀르 시대 / 기성복 시작시대	-국내(부탁및 백화점) -하와이쇼룸 (1965-66) -부유층과중 산층	-크리스티앙디오 르의 라인룩 -미니스타일 -판탈롱스타일	-갑사, 양단 -미아리실크 -면, 울혼방 -실크,실크혼 방 -데님, 누빔	-홈드레스 -원피스 -슈트	-한복 -파리트렌 드 -미니 -히피	-개방적 -동시대적 -상업적
1970년대 (1970-79)	기성복	디자인 차별화기 : 기성복 시대	-국내 (부탁, 백화점,백화 점(판매 주)) -해외수출 시작 -부유층과중 산층	-프린트패턴 -맥시스타일 -미니스타일 -판탈롱스타일	-미아리실크 -면 -울, 울혼방 -실크, 실크혼방	-원피스 -판탈롱 팬츠 -퍼트리밍	-신사임당 의 그림 -히피 -프린트패 턴	-영속적이 면서 동시대적 -상업적
1980년대 (1980-89)	기성복	소재와 프린트 패턴 특성화기 : 산업화 시대	-미국 -국내 -중산층	-프린트패턴 -랩스타일	-실크 -린넨 -비스코스	-라글란 슬리브 -랩스타일 원피스와 블라우스 -잠프슈트	-18세기후 반프랑스화 가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프린트패턴	-영속적이 면서 동시대적 -상업적
1990년대 (1990-99)	프레타 쿠튀르/ 기성복	클래식라인 회기기 : 절충 시대	-국내 -일본 -고정고객 및일반인	-토탈패션 -박시한 베릴라인 -플레이실루엣 -모노크롬컬러와 절제된 패턴	-면 -울, 울혼방 -실크, 실크혼방	-넉넉한 상의에 타이트한 하의 -슈트 -코트	-1950년대 중반-60년 대 노라노 스타일	-영속적 -상업적



‘프린트패턴’이라는 영속적 아이템을 찾아낸다. 그러나 1970년대가 영속적, 규정적 속성을 지닌 1950년대 역할복시대와 다른 점은 국내와 해외시장의 요구를 탄력적으로 수용해 동시대성을 디자인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미 백화점에 코너를 운영했고 해외박람회와 바이어쇼를 통해 제품수주를 받았던 기성복기인 이 시기 노라노의 디자인은 1960년대와 같이 상업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소재와 프린트패턴 특성화기’인 산업화시대 1980년대는 노라노가 미국시장에 집중하며 커리어 우먼들을 위한 디자인라인을 전개한 시기였다. 노라노는 안산반월공단 논스톱 생산시스템을 필두로 빠른 제품 회전력을 요구하는 미국시장에서 기후에 맞는 소재를 사용하여 디자인을 특성화해 시장을 장악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 화가들의 그림에서 모티브를 얻어 이를 재구성한 프린트패턴과 랩 스타일 그리고 원피스가 이 시기 주력아이템이었고 소재는 실크, 린넨, 비스코스가 사용되었다. 한국패션디자이너의 일면을 보여준 대표디자인은 메이시스 백화점에 진열된 블라우스와 팬츠착장의 『1045』와 5년 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며 한국 패션디자이너의 저력을 증명한 블랙과 베이지 스트라이프 원피스인 『5175』 등이 있으며 주요고객은 미국 중산층과 국내의 고정고객이었다. 산업화시대인 1980년대 노라노 디자인의 속성은 영속적이면서 동시대적이며 상업적이었다. 소재특성화로 경쟁력을 쌓아간 이 시기는 디자인차별화기인 1970년대와 동일한 속성을 지니며 다만 동시대적 순환패턴이 이전보다 더 빨라졌다. 직영공장을 운영했던 이 시기 노라노는 유행아이템을 바로 재생산해 유통시키며 제품 회전력을 높여 상업성을 인정받았다.

‘클래식라인의 회기기’인 절충의 시대 1990년대 노라노는 고정고객과 대중을 위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 노라노는 제1전성기의 클래식라인을 다시 선보이는데 이는 보수적인 국내고객의 취향과 변화된 세계트렌드를 반영한 것이었다. 박시한 베럴 라인, 플레이어스타일, 모노크롬컬러의 절제된 패턴이

주류스타일이었고 1980년대의 실크 프린트패턴라인도 일부 유지했다. 소재는 면, 울, 울 혼방, 실크, 실크 혼방이 사용되었다. 한국 패션디자이너의 일면을 보여준 대표디자인은 시대를 읽어내며 출시한 할인점 브랜드 <노라>의 플레이어라인 반코트와 슬림팬츠 착장의 『블랙슈트(1998)』가 있으며 이 시기 주요고객은 고정고객층, 할인점을 이용하는 중산층과 서민이었다. 절충의 시대인 1990년대 노라노 디자인의 속성은 영속적이면서 상업적이었다. 새로운 트렌드를 과감하게 받아들인 이전 시기와 다르게 자신의 클래식라인을 유지하며 영속적인 디자인을 고정고객을 위해 전개했고 상업성을 유지하기위해 할인점 전용브랜드를 출시하며 변화된 시장에 적응하기위해 노력했다.

##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노라노 디자인과 노라노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노라노 패션쇼와 디자인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한국 패션디자이너 발전과정의 일면을 고찰하는데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연구대상자 소장 리플렛과 인쇄매체자료 분석으로 밝혀진 근거가 명확한 노라노 패션쇼는 총 25건으로 밝혀졌으며, 1950년대부터 1990년대 노라노 디자인의 유형은 1950년대 ‘스타일 혼재기’, 1960년대 ‘스타일 정립기’, 1970년대 ‘디자인 차별화기’, 1980년대 ‘소재와 프린트패턴 특성화기’, 1990년대 ‘클래식라인 회기기’로 추출되었으며 각 시대별 디자인 속성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스타일 혼재기인 역할복시대 노라노 디자인의 속성은 규정적이며 영속적이고 보수적이었다. 둘째, 스타일 정립기인 프레타 쿠티르와 기성복 시작시대는 개방적, 동시대적, 상업적이었다. 셋째, 디자인 차별화기인 기성복시대는 영속적이면서 동시대적이며 상업적이었다. 넷째, 소재와 프린트 패턴 특성화기인 산업화 시대는 디자인 차별화기와 같이 영속적이면

서 동시대적이며 상업적이었다. 다섯째, 클래식라인 회기기인 절충의 시대는 영속적이며 상업적이었다.

제1세대 한국 패션디자이너 중 한명인 노라노는 한국 근현대 패션사에서 ‘해외트렌드 유입과 ‘고급기성복 패션 시스템 구축에 일조했다는 것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본 연구는 노라노 디자인의 시대적 유형과 특성을 추출하면서 활동기간이 방대한 디자이너의 모든 작품을 분석하지 못한 점과 다른 1세대 디자이너의 고찰을 통해 상호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이에 연구자는 후속연구로 ‘1980년대 노라노 디자인 고찰 -노라노 소장 컬렉션드로잉과 소재 샘플 분석을 중심으로-’와 ‘디자이너 최경자 고찰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디자인을 중심으로-’를 진행하여 20세기 한국 근현대 패션디자인 연구의 실증 자료와 패션사적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추출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유수경 (1989). 韓國女性洋裝의 變遷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수경 (1990). 韓國女性洋裝變遷史, 서울: 一志社.
- 2) 노라노 (2007). 노라노, 열정을 디자인하다, 서울: 황금나침반
- 3) 노라노 (2012. 05.23-06.02). 노라노 60주년 회고전 《La Vie en Rose 展》, 호림미술관 JNB Gallery.
- 4) 한국 근현대예술사 학술채록연구: 노라노 (2012. 06~12). 책임연구원: 박신미, 채록대상자: 노라노, 채록주관: 국립예술자료원. 채록자료집 2013년 10월 정리됨. ISSN, ISBN이 부여된 출판물 아님.
- 5) 박신미 (2014). 20세기 중·후반 한국 패션 고찰: 제1세대 한국 패션디자이너 노라노(노명자)를 중심으로, 복식, 64(4), pp.52~75.
- 6) 전시홍보물 자료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나 전시장에서 촬영한 작품사진은 본고의 사진자료로 사용한다.
- 7) 김현수 (2012. 05. 11). 한국 첫 양장디자이너 노라노, 동아일보: 김문 (2012. 05. 12). 패션인생 70년 전 여는 디자이너 노라노, 김문이 만난 사람, 서울신문: 김윤덕 (2012. 05. 26). 대한민국 1호 패션디자이너 ‘노라노’: 노명자, Why 김윤덕의 사람 人, 조선일보: Chic to Bones (2012. 06). 보그 한국판: The Moment of Nora Noh (2012. 06). 바자 한국판: 노라노 그녀의 뜨거운 인생 (2012. 06). 마리클레르 한국판: The Legend of Nora (2012. 06). 엘르 한국판: Nora’s House (2012. 06). 보그

결: 대한민국 1호 패션디자이너 노라노 패션인생 60년 (2012. 06). 우먼센스: 한국 최초 패션 디자이너 노라노 (2012. 07). FASHIONGIO.

- 8) 박신미. 앞의 책, pp.52~75
- 9) 학술채록연구(2012. 06-12)는 예비면담(2012. 07.10: 08.02: 08.16), 채록면담(2012. 08.29: 09.05: 09.12: 09.19: 09.26), 3차례의 추가 채록면담(2012. 12.12: 12.22: 12.26)을 실시했음. 예비면담은 1회 2시간, 본 채록면담은 5시간, 추가 채록면담은 2시간이 기준임.
- 10) 선행연구면담(2013. 05.26: 06.22: 08.23)에는 다규멘터리 『노라노』감독 김성희의 면담이 포함되어있음. 연구면담은 3시간이 기준임.
- 11) 본고를 위한 면담(2013. 05.28: 06.22: 10.19: 12.02) 중 2013년 05월 28일과 06월 22일 면담은 선행연구면담과 함께 진행함. 디자인관련 면담은 선행연구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당시 수집된 자료를 본고의 연구 대상에 포함시킴. 면담에는 수집된 자료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2012년 학술채록연구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정창미연구원의 면담을 2회 포함시킴.
- 12) 패션쇼의 명칭은 기록으로 확인된 것은 기록물에 기재된 형식 그대로 기록하였고 신문과 사진자료로 확인되거나 명칭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은 것은 패션쇼 개최 장소를 기준으로 기입하였음. 또한 기사명이나 내용 역시 현재의 국문법에 맞지 않더라도 원본을 기준으로 인용함.
- 13) 『제1회 반도호텔 패션쇼』 1956. 11. 29. 2:00pm: 패션쇼사진을 노라노가 소장하고 있으며 유수경(1989)의 연구에서 해당내용이 처음 언급됨.
- 14) 패션쇼 전경과 쇼 직후 모델들과 찍은 사진자료를 노라노가 소장 중임.
- 15) 좀 더 大衆的으로 (1958. 05. 23). 동아일보.
- 16) 『제9회 노라·노 햇선쇼』, 03. 31. 14:00, 그랜드호텔 7층.
- 17) 2012년 09월 19일 채록면담.
- 18) 노라노가 원본 신문을 소장하고 있으나 출처부분이 잘려 나가 있음.
- 19) 『노라노 고별 패션쇼』, 10. 23. 3:00pm, 조선호텔.
- 20) 1969년 06월 18일 3:00pm 극동호텔에서 열린 부산 YMCA건축물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패션쇼이다.
- 21) 2012년 09월 12일 채록면담.
- 22) 노라노는 2012년 09월 12일 채록면담에서 ‘목화아가씨 패션쇼’가 69년과 70년 2년에 걸쳐 2차례 개최된 것으로 기억하나 중앙일보기사 확인결과 69년과 71년 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직서 찾는 발랄과 우아 ... 목화아가씨 ‘패션쇼’ (1971. 06 .01). 중앙일보. 리플렛이 소장되어있는 69년 패션쇼의 명칭은 『면직물 기성복 쇼』이며 71년 쇼는 중앙일보에 『목화아가씨 ‘패션쇼』로 기재되어있음.
- 23) 노라노가 원본신문을 소장하고 있으나 출처부분이 잘려 나가 있고 1972년 기사로 기록되어 있음. 하지만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신문과 기타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해당 자료는 1973년 봄 박람회 참석기사로 확인.
- 24) 파리의 기성복 ‘쇼’에 참석하는 노라노씨 (1973. 10. 18).

- 중앙일보.
- 25) 『견직물바이어패션쇼』는 상공부에서 2만 불 나머지 기금은 경기실크, 동아실크 등 10대 실크회사의 조합인 <대한합사협회>에서 컬렉션비용을 지원했다. 당시 상공부는 패션쇼 지원조건으로 노라노에게 1년에 10만 불 판매에 도전 할 것을 의뢰하였다고 함. →2012년. 09월 19일 채록면담.
  - 26) 퍼시픽 호텔서 크리스마스 패션쇼 (1975. 12. 17). 중앙일보
  - 27) 1991년 11월 15일 청담동 <노라노의 집>.
  - 28) 이 시기 노라노가 기억하는 디자인은 이탈리아 참사관 부인이 가져온 이탈리아산 은사와 금사가 들어간 브로케이드(brocade)로 만든 『이브닝 앙상블』과 미군 장성 부인이 가져온 캐시미어로 만든 『라글란슬리브 코트』이나 해당 자료는 실물과 사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2년 09월 05일 구술면담. 노라노는 고객 이 가져온 브로케이드를 이탈리아산 이라고 구술하였으나 브로케이드는 일반적으로 자카드 직으로 직조되어 무늬가 두드러지는 중국산 비단을 지칭한다.
  - 29) 미8군 장교클럽 가수 유정희, 박혜옥, 박단마의 무대 의상, 연극협회<신협>의 『인어공주』, 『간디, 1950』, 『카르멘』, 『햄릿, 1951』, 『로미오와 줄리엣』, 『맥베스』, 『오세로』, 『은장도』 등의 극 의상을 담당하며 <신협> 회원인 이혜랑, 김동원, 이향, 서울 발레단의 한동인 그리고 여성국극의 임춘앵 등과 협업을 통해 한국 문화발전에 일조했다. 박신미 (2014). 앞의 책, p.59.
  - 30) 유치진(1905-74) 연출, 최은희 주연의 첫 사극임.
  - 31) 창극은 여성이 남복을 해 남성을 연기함으로써 노라노는 당시 주인공 임춘앵을 위해 남성 한복을 디자인했다.
  - 32) 해당디자인의 드로잉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원본이 아닌 노라노가 2007년 중앙일보연재를 위해 재현해 그린 것이다. 드로잉 상단에 195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노라노는 이것이 1949년 디자인이라고 면담 시 년도를 수정함. →2012년. 09월 05일 채록면담 직후 추가면담에서 논의함.
  - 33) 『키스 오브 파이어 드레스』의 제작연도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노라노의 자서전과 기존의 저작물에 『키스 오브 파이어 드레스』가 1954년 작품으로 표기되었으나 2012년 09월 05일 면담에서 노라노는 해당작품이 환도(還都, 1953)전인 1952년 미8군 가수 유정희를 위한 무대의상 작품이 확실하다고함. 인쇄자료로만 남아있는 해당 작품은 소실된 상태이며 『라 비 앙 로즈』전을 위해 노라노가 재현품을 제작해 소장중임.
  - 34) 1950년 6.25 발발 직전 노라노는 신협의 연극 『간디』의 의상을 제작하였는데 해당연극이 사상문제로 검열을 받게 되어 대체 공연을 위해 『롬바드드레스』를 디자인함.
  - 35) 2012년 09월 05일 구술면담에서 해당의상이 1953년 명동 <시공관>에서 공연된 <신협>의 햄릿의상이라고 구술하였으나 본 연구자료 정리 시 기록이 되어 있는 사진의 텍스트 확대결과 김동원의 사진 촬영 년도가 1951년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해당 햄릿의상은 1953년이 아닌 1951년 작품이다.
  - 36) ‘칼리지패션’은 노라노가 프랑스 연수 직전인 1956년 선보였던 스타일로 현재 연수 출발 전 비행장에서 당시 고객들과 촬영한 사진이 자료로 남아있다. 사진 속 플레이어원피스 디자인은 ‘A Century of Fashion’의 1950년대 미국여대생들의 착장과 동일한 스타일이다.Francois Baudot (1999). A Century of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p.141.
  - 37) 박신미. 앞의 책, p.60.
  - 38) 사진 왼쪽부터, 장은혜, 하영혜, 김금주, 남미리, 김윤희, 노라노, 기억 안남, 엄미리, 김은희, 정경술 → 2012년. 09월 12일 채록면담.
  - 39) 해당디자인은 노라노가 『라 비 앙 로즈』전시를 위해 사진을 보고 재현하다가 1957년 <대한뉴스>의 『제2회 패션쇼』 장면을 보고 디자인에 뒤트임이 있음을 발견했으며 노라노가 자신의 디자인 중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작품 중 하나이다. →2012년. 09월 05일 채록면담. 당시의 디자인은 인쇄자료와 영상으로만 남아있고 노라노가 재현품을 소장중임.
  - 40) 노라노 소장디자인. →2012년. 09월 05일 채록면담에서 설명.
  - 41) 노라노 소장디자인 →2012년. 09월 05일 채록면담에서 설명.
  - 42) 2012년 09월 05일 채록면담. 인쇄자료로 남아있는 해당 디자인은 노라노가 재현품을 소장중임.
  - 43) Nora Noh Fashion Creations to U.S. Wives Club 1959년 기사에서 소개된 해당디자인은 소실되었지만 1960년대 초반 같은 시리즈 라인을 당시 워싱턴 세계은행에 재직했던 세레나 한이 구입했고 현재 작품은 프랑스 거주중인 세레나 한의 조카가 소장중임. 『라 비 앙 로즈』 전시를 위해 노라노가 대여했다가 2013년 10월 주인이 찾아가. 작품은 양단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노라노가 재현품을 소장하고 있음.
  - 44)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주력아이템으로 디자인된 『아리랑드레스』는 노라노가 1959년 한국대표로 미스유니버스에 출전한 오현주를 위해 디자인하면서 인기를 얻는다. 부족한 원단수급상황 속에서 노라노는 외교관들의 파티복으로 1950년대 초반부터 한복을 모티브로 드레스를 디자인해 왔지만 오현주 이후 이 스타일이 유행하자 시장에서 갑사와 양단으로 만들어져 금박 혹은 은박 무늬로 장식된 드레스가 모두 『아리랑 드레스』로 통칭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 한복을 드레스화한 스타일을 모두 『아리랑 드레스』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노라노는 이것이 모두 『아리랑드레스』의 디자인 요소를 충족시키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곧 『아리랑드레스』 스타일이 이 시기 유행 한 것은 맞지만 한복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노라노의 의상을 모두 『아리랑드레스』라고 명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 노라노가 인정하는 『아리랑드레스』는 현대의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양단으로 만든 오현주의 드레스, <미추 43번>에 소개된 세레나 한의 『양단 용무늬 드레스』 그리고 엄앵란이 소장하고 있는 『갑사드레스』이다. →2012년. 09월 05일, 09월 26일 채록면담.
  - 45) 박신미. 앞의 책, p.61.
  - 46) 문정숙 주연의 『만추, 1966』, TBC 일요로맨스극장 『내

- 멋에 산다, 1967』에 기성복을 협찬했으며 강부자, 나옥주, 남미리, 사미자, 정혜선, 문혜란, 엄매리, 윤여정, 윤소정, 태현실 등도 노라노의 디자인을 협찬 받았다.
- 47) 공영란에게 2012년 기증받아 현재 노라노가 소장중임.
  - 48) 최옥경에게 2012년 기증받아 현재 노라노가 소장중임.
  - 49) 공영란에게 2012년 기증받아 현재 노라노가 소장중임.
  - 50) 하와이 진출 패션쇼인 『로얄 하와이안 호텔 패션쇼』, 1965년.
  - 51) 2012년 09월 09일, 12일 채록면담에서 노라노는 1967년 하와이에서 귀국직후 윤복희가 찾아와 해당 디자인을 의뢰했다고 함. 현재 해당디자인은 소실된 상태이며 노라노가 사진을 바탕으로 재현한 재현품을 보관중임.
  - 52) 홍기애에게 2012년 기증받아 현재 노라노가 소장중임.
  - 53) 공영란에게 2012년 기증받아 현재 노라노가 소장중임.
  - 54) 김익영(1935-): 국민대 도자공예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는 명예교수이다. 퇴임 후 도자기 회사 <우일요>를 경영하고 있다.
  - 55) 2012년. 09월 19일 채록면담에서 설명.
  - 56) 실물은 소실되었고 상공부와 대한잡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뉴욕에서 개최된 패션쇼 사진만이 남아있음.
  - 57) 『75 화이트·크리머스·패션·쇼』
  - 58) 위 쇼에서 선보인 디자인.
  - 59) 박신미. 앞의 책, p.62.
  - 60) 2012년. 09월 19일 채록면담.
  - 61) 브랜드의 분리운영은 선행연구에서 노라노의 미국 리플렛을 보고 연구자가 밝혀냄. 박신미. 앞의 책, p.62.
  - 62) 주력소재로 East는 실크를 West는 린넨과 비스코스를 사용함.
  - 63) 박신미. 앞의 책, pp.62-63.
  - 64) 왼쪽 상단에 보이는 로고가 <Nora Noh Inc., New York>의 로고이며 가운데는 뉴욕과 LA 쇼룸의 주소이고 오른쪽은 모회사인 (주)예림양행의 주소이다.
  - 65) 해당드로잉은 『9175』이며 현재 노라노가 재현품을 소장중이다. 블랙과 베이지 스트라이프 라인인 『5175, 1985』를 시작으로 1985년부터 1989년 『9175』까지 이 디자인은 5년 동안 판매되었다. ‘네이비와 레드’, ‘블랙과 화이트’ 등 시즌별 혹은 지역별 선호컬러를 찾아내 매 시즌 새로운 컬러라인을 선보였다.
  - 66) 본 연구는 노라노의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표 디자인의 유형 및 특성을 시대별로 분석하여 디자인의 본질적 성격을 나타내는 함축어를 연역적 추론 방법을 통해 추출했다.
  - 67) 2012년. 09월 26일 채록면담.
  - 68) 이인호(1936-): 대한민국 제1호 여성대사.
  - 69) 김인자에게 2012년 기증받아 현재 노라노 소장.

# **A Study on First Generation Korean Fashion Designer, Nora Noh**

## **-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Nora Noh's Fashion Shows and Designs from the 1950s to the 1990s -**

**Park, Shin Mi**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shion shows and designs of Nora Noh, a first generation Korean fashion designer, from the 1950s to the 1990s. The research also examines 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fashion design by highlighting Nora Noh's fashion.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are; What are the important features in Nora Noh's fashion shows and designs from the 1950s to the 1990s?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exhibited in each decade of Nora Noh's designs and what are the works that affected fashion and modern history of Korea in the mid to late twentieth century? The researchers deploye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providing a systematic review of the previous studies by analyzing content as well as oral statement interviews and a case study of Nora Noh. The positive research method was also included. Twenty-five Nora Noh fashion collections were analyzed by the leaflets possessed by Nora Noh and printed media such as newspapers, program sheets and fashion magazines. The results show that the characteristics of Nora Noh's designs are: A 'mixed style era' for the 1950s, an 'established style era' for the 1960s, a 'design differentiation era' for the 1970s, a 'fabric and print characterizing era' for the 1980s, and a 'returned classic line era' for the 1990s. To sum up, Nora Noh is one of the first generation Korean fashion designers who led the Korean fashion system and trends in the mid to late twentieth century.

Key words: Nora Noh, the characteristics of fashion show and design, first generation Korean fashion designer, Korean modern fashion history